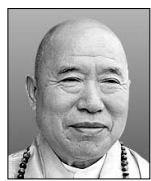


일주문



3천여 노인초청 경료잔치
법륜종 중정 정각 스님은 2월 3일 오후 2시 목포 KBS 스포츠 홀에서 목포지역 노인 3000여명을 초청해 경료잔치를 개최한다.(061)276-1730



하와이 무량사 대법회 참가
서울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은 하와이 무량사에서 열리는 다도원 개원법회(14일), 요양원 건립법회(21일) 등에 참가하기 위해 1월 14일 출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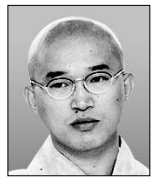
<송광사 불화> 도록집 발간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최근 송광사 본말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화를 한데 묶은 도록집 <송광사 불화>를 발간했다.



초중등교원 연수 실시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1월 17-21일 경남도 교육감 지정 특수분야연수기관인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초중등교원 문화연수'를 실시했다.



미안마 성지순례
조계종 군불교위원장 성광 스님은 1월 20-27일 미안마에서 우수 군법사 대상 성지 순례를 실시하기 위해 20일 출국했다.



박종철 열사 1주기 추모제
부산 동명불원 주지 도관 스님은 1월 13일 대웅전에서 가족들과 민주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종철 열사 18주기 추모제를 개최했다.



총지중 총무부장에
총지중 선도원 전수는 1월 14일 단행된 2005년 중단 승직자 인사 개편에서 총지사 주교 겸 총무부장으로 임명됐다.



겨울워크숍 개최
불교학연구회 이종표 회장은 2월 12, 13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대승기신론과 원효사상'이란 주제로 겨울 워크숍을 연다.(011)625-5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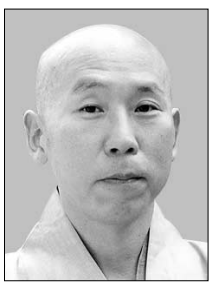
교사불자회 수련회 개최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임관숙 회장은 1월 18-20일 복제주군 불사리담 등지에서 전국교사연합 수련회를 개최했다.



대불청 신임회장 취임식
대한불교청년회 김익석 회장은 1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회장 이·취임법회를 열고 제23대 대불청 회장에 취임했다.

“노인 인력개발로 포교불사”

대전 중구노인인력지원센터 개관 장곡 스님



“건강하게 짝 흘러야 할 분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노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겠습니다.”

1월 14일 대전 중구노인인력지원센터를 개소한 장곡 스님(공주 갑사 주지·사진)은 “앞으로 지역노인 일자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시켜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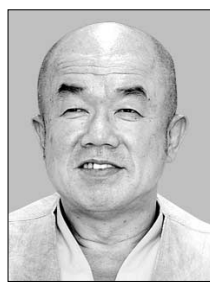
대전서구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맡은 지난해 2월부터 노년층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노인인력지원기관을 설립을 통한 노인복지의 '불교적 활로'를 모색해온 장곡 스님. 스님은 “그동안 큰 소득 올린 도시락·밀반찬 제조와 유기농 채소재배·가공 등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소득증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유성구에 6000여 평의 농지를 마련, 시설채소 재배 사업단도 꾸려갈 계획이다.

장곡 스님은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 인구비율 9.1%를 넘는 만큼 고령사회의 진입이 머지않았다”며 “불교계에서 한발 앞선 노인인력 개발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인들에게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진 기자

“이번엔 부르기 좋은 노래 공양”

법문가요 2집 낸 법만 스님



“1집이 듣기에 좋은 노래였다면, 2집은 부르기에 좋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노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문가요 부르는 스님’으로 알려진 법만 스님(서울 중랑구 법만사 주지·사진)이 최근 법문가요 2집 ‘금빛 부처님’을 냈다. 3년 전 법문을 노랫말로 만든 ‘법문가요’를 선보인 스님은 이번에도 백범(한국향토음악인협회 상임부회장)씨가 작곡한 노래에 가사를 붙여 직접 노래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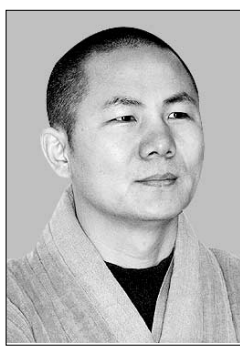
1집이 ‘참회’나 ‘수행’ 등을 주제로 제작했다면, 2집은 ‘발원’과 ‘깨달음’을 주요 테마로 삼아 금빛 부처님, 자비광명, 그리운 어머니 등 총 18곡을 수록했다.

스님은 “법문가요는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찬불가와 달리 신행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편”이라며 “법문가요를 통해 불심과 생활 속 기쁨을 함께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중국불교 변화에 한국 불교가 있죠”

연변 대각사 건립 추진하는 정암 스님



“1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내 스님의 위치는 거지 바로 위였습니다. 또 불교는 마신 정도도 취급받았습니다.”

중국 연변에 대각사 건립을 추진 중인 정암 스님(사진)은 당시 중국 내 스님과 불교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스님은 “경제적 율택을 강조했다던 마오쩌둥 시대가 지나가고 장쩌민 시대가 도래하자 이러한 시각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쩌민 전 주석이 1998년 베이징대(北京大) 10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 전통의 도덕적 회복을 언급하면서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화(大清華大) 한 여교수가 오대산으로 출가한 것도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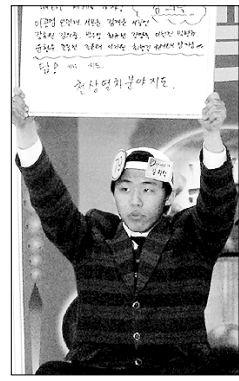
“중국 우수대학교에 재직중이던 여교수가 왜 미신으로 취급하던 불교에 귀의했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정암 스님은 중국 내 불교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 모든 종교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또 “대각사가 재가불자 양성 요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가불자라도 수행력이 뛰어나면 스님도 그의 제자가 되는 중국불교의 풍토 때문이다. 화엄사가 본사인 정암 스님은 베이징대에서 중국철학을 전공했다. 스님은 2003년 <유마경>을 연구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연변대 방호범 교수와 함께 수월 스님에 대한 논문을 집필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제44대 ‘골든벨’ 땡~

능인고 김희탁 군



조계종 중립학교인 능인고등학교 3학년 8반 김희탁 군(사진)이 KBS1 TV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에서 제44대 골든벨에 등극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능인고등학교 학생 100명이 참가한 ‘도전! 골든벨’은 유종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월 5일 능인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펼쳐졌다. 김희탁 군은 골든벨을 울린 부상으로 대학교 등록금과 유럽 배낭여행비 300만원을 받았다.

배지선 기자

총화종 신년하례법회 및 사무식



총화종(총무원장 남정) 신년하례식 및 사무식이 1월 13일 남양주 총무원수신사에서 열렸다. 종정 동광 스님을 비롯해 교구 총무원장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총화종은 5월 26일 경부터 4차례 금강산 성지순례, 10월 중순 수계산립법회 등 2005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유가사 일천원불전 낙성식



달성군 유가사가 1월 9일 지방루 일천원불전 낙성식을 거행했다.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이번 일천원불전 낙성을 통해 유가사는 달성군 불자뿐만 아니라 군민의 귀의처요, 복전의 되는 선불장이므로 성상장기를 바란다”고 처하의 말을 했다.

산악인련 신년하례법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김진관)는 1월 20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총회에서는 신탄진불교산악회의 신규회원 가입, 신년계획 등을 확정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백장기 중앙신도회장, 손현수 초대총재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사하불교연합회 신년하례



부산 사하불교연합회(회장 남운)는 1월 14일 사파이어호텔에서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사물놀이 풍물패 공연에 이어 신년법회는 홍보국장 대영교인의 발원문 낭독, 승가와 재가의 신년하례, 수석부회장 보각 스님의 경과보고, 회장 인사, 대성 스님의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행사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불자회는 1월 19일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700회 특집에서 소개된 의정부 쌍암사에서 비인가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교통통신원 불자회는 불우 청소년 10명과 독거노인 3명에 120만원 상당의 식유 6백 리터와 라면 30박스 등을 지원했다.

화측

조영호(전 불교신문 업무국장)씨의 장남 의성 씨가 1월 29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상제리제 1층 웨딩홀에서 신부 조수인 씨와 화측을 밝힌다.(02)824-7654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료를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 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단’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삶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전생치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법화 정법회.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 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금강선원 해광(海光)스님 포교역정 생활불교예시에]

속을 보이는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거르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분별심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 온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는 그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승찬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는 훗날 제4대조가 된 도선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주

● 해광스님 지음
● 열린출판사 / 9, 9,000원

해광(海光)스님 불교법전의술서「불기비밀」/ 실용역학서「운명비결」/ 처서 최초의 소설서 불교교리서「왕초보 절에가다」집필 중.

운명비결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환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해광스님 지음
● 신공판 / 양장본 / 416페이지
● 정가 12,900원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수와 속명
- 자궁지의 사주팔자
- 집,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사주팔자
- 부동산(집, 땅, 가게, 사업장)의 사주팔자
- 자궁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교제, 결혼,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즉시 판단하는 법
- 시명,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운명비결 전문가 과정 신청 접수

금강선원 해광스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TEL 032)665-8472